

학술단신

불교출판 미래 발전 전략은?

27일 월간 <불광> 500호 기념세미나

미디어 변화에 따른 불교출판과 잡지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광미디어와 불광연구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불교출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장은수 편집문화실 협실 대표가 '한국불교 출판시장 분석과 미래전략'을, 김경달 네오터치 포인트 대표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콘텐츠 소비 성향'을, 이종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가 '디지털 시대 출판 잡지 최근 동향과 모색' 등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써 서재영 불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2기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 출범

국립무형유산원, 7일 위촉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무형유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4월 7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2층 세미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와 창조적 진흥,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2014년 개원한 국립무형

유산원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2년 임기의 위원 구성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단체, 언론, 학계, 문화재위원 등 14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지자체(전주시) 관계자 1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향후 업무계획과 공간 활용·홍보 관련 개선 계획을 보고한 후 자문을 받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민원 개선 제도 추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행정 민원에 대한 내부 직원의 관리 역량 강화와 인식 향상을 통해 국민의 민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행정 민원업무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문화재청은 △ '민원점검의 날' (매월 1·3주 월요일) 지정·운영 △ 주요 민원에 대하여 상급 관리자가 직접 상담하는 '상급자 리콜제도' 실시 △ 민원처리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 민원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관리자의 민원현장 방문을 활성화하고 민

원업무를 감사와 연계하며, 민원처리 실적을 성과체제와 연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31일엔 민원 전문가와 민원 우수부처 담당자 등을 초청해 문화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재행정 민원업무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원이 상존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문화재 지역 발굴조사 의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문화재행정의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여성주의로 불교를 읽어내다

옥복연 등 연구서 <불교와 섹슈얼리티> 발간

"여성은 성불하지 못한다" "전생애 업이 많아 여성으로 태어났다"

현대사회의 여성이 들으면 팔짝 뛰어야 하지만, 엄연히 불교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다. 사실 여성이 현재의 보편적 지위를 가진 것은 오래된 일은 아니다. 여성이 참권력을 가지던 시기도 1920년대에 들어서다.

여성역사 속 대부분의 '진보'에서 사실상 열외였다. 이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불교에서는 신자의 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는 종단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엄연히 남자가 다르다는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 전재성 한국 빼알리성전학회 회장, 류경희 종교학 박사, 김정희 가베를 대표, 우혜란 한국신종교학회 연구이사, 조승미 불교학 박사가 공동저술한 연구서 <불교와 섹슈얼리티- 여성, 붓다를 만나다>는 불교안의 '남성성'이라는 철학적 성찰에 도전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불교 안에 여성을 억압하는 데투리는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교의 역사를 끝까지 올라가 보면 어떤 종교보다도 여성친화적이라는 것이다. <불교와 섹슈얼리티>는 이 같은 예를 초기경전에 찾는다. 불교는 극심한 불평등과 견고한 카스

트 제도가 지배하고 여성이 남성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한두 사회에 사회운동처럼 등장했다. 그러한 급진적 속에서 불교가 여성에게 보인 급진적 태도는 논리적 모순이 아니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는 데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가르쳤으며, 그에게는 언제나 칭송해 마지않던 10명의 제자여성 제자도 있었다.

'불교 여성주의' 화두로 삼고

초기·선불교 등 전방위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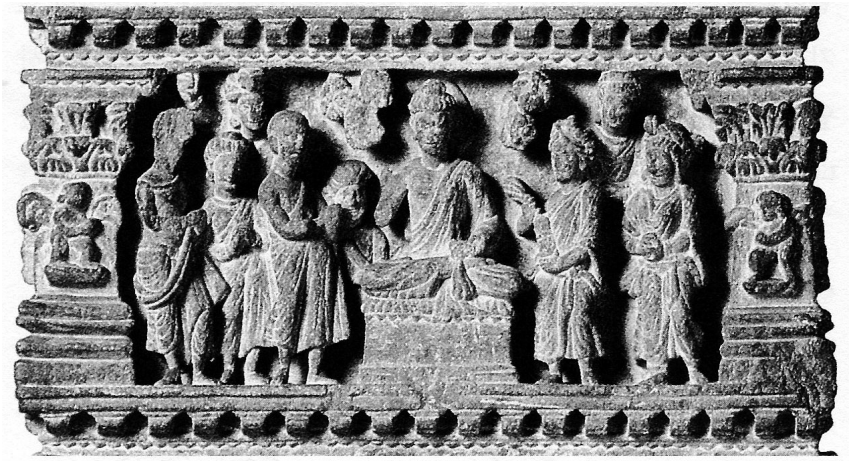
문제는 가부장적 혼습 체제

시대·지역 거치면서 공고해져

성 평등한 종교 활동이 필요

교리부분에서도 여성주의적인 면이 나타난다. 불교의 연기, 공, 무아 사상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또한 '성의 결박'이라는 관점에서 평등하게 여겼다. 성별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재성은 "붓다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야 함을



'여성의 출가' (2~3세기, 파키스탄 라호트 박물관). 여성의 출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가르친다"면서 "신체적 조건에 따른 남성성·여성성을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면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성성을 회복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가부장적 혼습 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한 이후로 시대와 역사를 거치면서 본질을 왜곡시키고 강화됐다는 것이다.

'여성불성불론(女性不成佛論)'은 <앙굿따라니까야> '여자의 경'에 처음 나타나지만 '고따미의 경'에는 여성도 성불할 수 있음을 수기한다. 이런 모순에 대해 <앙굿따라니까야>가 니까야 가운데 남성 중심적 사상이 팽배한 후기에 성립됐고, 그 결과 사회적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편입됐을 것"이라고 봤다. (전재성)

또한 경전에서도 가부장성은 초기불교에서 중국,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강화된다. 남편을 세존처럼 따르고 순종하는 하인 같은 아내만이 착한 아내로 인정받는 것이다.

대표 저자인 옥복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또는 경전이 번역·유통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관이 첨가·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성주의 내부에서는 종교내부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면서 종교의 상징과 의례도 남성 중심적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여성도 종교 내 남성 중심성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성 평등하게 개선하면서 주체적인 종교활동을 할 때 진실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훈민정음 확산, 불경 언해 때문에 가능"

훈민정음은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의 모태이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어떻게 보급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 양식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보급에도 불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봉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는 최근 연구서 <훈민정음 그리고 불경 언해>를 발간했다. 김 교수는 연구서를 통해 훈민정음 반포와 보급에 불경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훈민정음 창제 후 15세기 말까지 간행된 정음문헌 중 현존하는 언해문헌은 30종에 이르지 않지만 이중 불교 관련 언해는 20여 종에 이른다. 특히 불교 관련 언해는 책별 권수가 많아 양으로 보면 절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이었던 1447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불서인 '석보상절'을 지은 것을 시

작으로 불서의 간행과 국역사업을 주도했다"면서 "이처럼 훈민정음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책인 불경 언해류를 통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16세기로 넘어가면 왕실 주도 불경언해

김무봉 교수, <훈민정음~> 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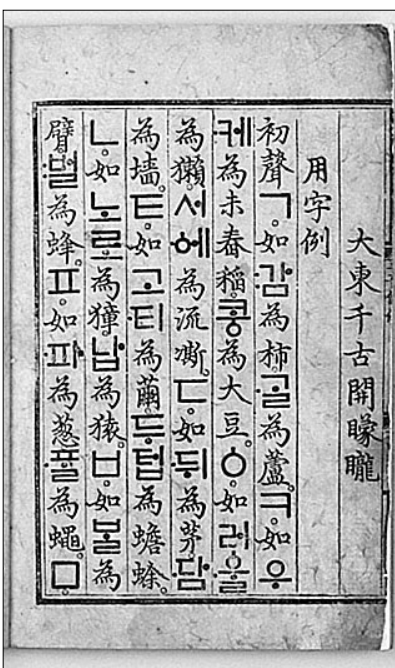
언해 문헌 30종 중 불경만 20종

16세기 들어 불경언해 민간 주도

해례본 찬술, 불경 방식 답습해

해 사업은 지방 사찰에서 간경불사로 행해지던 '사각본(私刻本) 불경언해'로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또한 김 교수는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 양식은 불경 편찬 양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보 70호 <훈민정음>의 일부.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이후 불경 언해 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보급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독특한 설명방식을 가졌다. 산문형식의 설명이 끝나면 뒤에 운문으로 요약했다. 이는 불경의 찬술 방식"이라면서 "이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경의 찬술 방식인 '장화'와 '중송'에서 차용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불경 언해 작업이 방대하게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여말선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구결불경의 전통 때문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여말선초에 대량으로 작성된 구결불경들이 문자 창제 이후 불경 언해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유교 경서에 대한 한문 구결 현도는 없었다"면서 "15세기 언해 문헌들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 한국어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4월 30일까지
- ◆ 개강일시 : 2016년 4월 중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중·고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大出力 믹싱앰프
- ◆ 설치가격 : 2,25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250W 350W 450W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